

곡성 농산물 직접 맛보고 즐기는 '팜파티' 연다

군, 도농교류 촉진·직거래 확대 등 마케팅 지원사업 추진 죽곡 '섬진강 무화과 농원'·옥과 '초이스팜' 농장서 개최

곡성군이 지역 농산물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팜파티'를 올해 두차례 연다.

곡성군은 도농교류 촉진 및 농산물에 대한 신뢰 증진, 직거래 확대를 위해 팜파티 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팜파티'는 농장을 뜻하는 '팜(Farm)'과 '파티(Party)'의 합성어로, 농촌체험상품과 농가에서 직접 재배·생산한 농산물과 음식들을 맛보고 즐기는 파티문화를 결합한 새로운 형태의 농촌 마케팅이다.

또 기존의 농촌관광, 체험과는 달리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제로 다양한 먹을거리와 볼거리들을 선보이고, 방문객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농산물에 관한 이해와 신뢰감을 증진시키고 지속적인 교류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행사다.

올해는 죽곡면 당동리 '곡성 섬진강 무화과 농원'과 옥과면 수리 '초이스팜' 농장에서 개최할 예정

이며, 사업비 1000만원이 지원된다.

'곡성 섬진강 무화과 농원'은 3년 전에 시설하우스 3동 900여평에 친환경 무화과를 생산해 생과·잼·즙·양갱 등을 선보이고 있으며, 오는 6월20일 '무화과 맛남 팜파티'를 주제로 고객 초청행사를 진행한다.

'초이스팜 농장'은 오는 7월4일 '소소농부 자연 먹거리 힐링파티'를 주제로 미니밭호박·삼색망고·서리태 등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활용한 먹을거리와 공연으로 고객들과 함께 한다.

곡성군 관계자는 "현대인들의 건강한 식문화 요구와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부응해 지역농산물에 대한 신뢰감을 더욱 높이고 농촌관광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팜파티 행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지난해 9월 곡성 기지마을 장미공원에서 수상한영농조합법인 등 2개 농장이 '토란 팜파티'를 열었다. <곡성군 제공>



'희망나눔 캠페인' 전년비 153% ↑ 곡성군, 우수기관 감사패 받아

곡성군이 '희망 2019 나눔캠페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전남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사진>

곡성군은 지난해 11월20일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진행된 '희망 2019 나눔캠페인'에서 총 1억 6000여만 원을 모금, 전년 대비 152.8%를 달성했다.

유근기 곡성군수는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총출동 복지정책을 펼쳐 소외되는 이가 없는 곡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kwangju.co.kr

보성군, 미세먼지 저감 주민참여형 숲 조성 2022년까지 나무 1000만그루 심는다

보성군은 미세먼지를 줄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나무 1000만 그루를 심는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보성군은 올해 상반기에 10억원을 투입해 도로변과 학교, 철도 옆 방치 부지 등 자투리땅 등에 보성을 상징하는 숲과 주민 참여형 숲을 조성한다.

보성역과 벌교읍 장양이촌체험장, 여자만 중도 방죽길, 득량 천만송이 장미 삼삼리길, 울포 삼거리 공터 등에는 관광 휴양지 인근에는 각종 나무를

심어 보성숲 공원을 조성한다.

도심을 관통하는 철도 인근에는 인공연못을 만들고 수생 정화식물을 식재하기로 했다.

심신 안정을 위한 허브 식물과 야생초 등을 심어 일상 속에서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숲 공원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보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쉼터, 건강, 휴양, 치유공간으로 제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보성군이 오는 2022년까지 나무 1000만 그루를 심어 보성숲 공원을 조성한다. <보성군 제공>

유흥·단란주점·노래연습장 구례군, 5일까지 운영 중단

구례지역 유흥·단란주점과 노래연습장 전체 업소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 운영을 중단했다.

지난 31일 구례군에 따르면 유흥·단란주점 등 대표자와 구례군 관계자는 지난 27일 회의를 열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속히 재난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청정구례를 지킨다는데 합의, 전체업소가 오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하기로 결의했다.

정부 제한명령의 적용대상이 아닌 노래연습장 업주들도 코로나19 종식을 바란다면 전체업소가 영업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골든벨은 못 울렸지만... 녹동고의 행복바이러스 울려 퍼지다

고흥 첫 도전... 전국에 꿈·끼 전파

고흥지역 최초로 골든벨에 도전한 녹동고가 어렵게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다. 하지만 패기 넘치는 끼와 다양한 교육활동을 그려내면서 전국의 시청자들에게 행복바이러스를 전파했다.

녹동고등학교(교장 최용성)는 지난 29일 KBS 1TV '도전! 골든벨'에 방영됐다. 녹동고는 '더불어 행복을 가꾸는 농어촌 미래학교'로, 학생·학부모·지역민들이 학생들의 꿈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행복중심학교의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했다.

최미진 학생회장은 소록도에서 희생과 봉사로 우리에게 희망을 남긴 마리안느와 마가렛 간호사의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며, 전교생이 참여한 영문과 국문으로 '교황님께 500여 통의 편지쓰기'와

'노벨상 수상기원 100만인 서명운동' 등 다양한 민주시민교육활동을 소개했다.

단발머리에 파마가 잘 어울리는 여자가 이상형이라는 이계진 군은 신박한 매력 어필로 이상형을 찾아 나섰고, 이듬에 대해서 특별한 사연이 있다는 신성찬 군은 아버지와 이름을 합치면 '진수성찬'이 된다는 큰웃음을 선물했다.

애니메이션 동아리 이주리 학생은 동아리 친구들과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이야기를 수준 높은 애니메이션을 제작해 소개하여 전국의 시청자의 주목을 끌었다.

고흥지역 교육공동체의 뜨거운 응원 속에 고흥의 브랜드인 유자, 김일 박치기, 소록도, 고흥 커피와 관련된 고장의 여러 문제들을 잘 맞추어 내면서 애향심을 전국에 알렸다.

최후의 1인이 된 정서는 당차게 '기자'의 꿈을 밝히고 골든벨에 한발 한발 다가섰으나, 48번에서 '동방견문록'의 저자 '마르코 폴로'를 맞추지 못해 골든벨을 울리지 못했으나 해의 어학연수권을 확보하고 즐거워했다.

응원에 나선 최용성 교장은 "한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녹동고등학교는 여러분의 꿈을 우주로 쏘아올릴 발사대가 되어 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한편, 녹동고는 고흥군에 있는 공립고등학교로 1974년 개교했다. 일반계 고등학교로는 고흥지역 최초로 설립돼 올해 2월 제44회 졸업생까지 7793명을 배출했다. 지난 2015년 전국 100대 교육과정 최우수학교(교육부장관)로 선정됐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골든벨'에 도전한 최미진 학생회장이 녹동고 학생들의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의 노벨상 수상을 기원하는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녹동고 제공>

한 사람의 보험범죄 전국민의 경제부담

2016년 9월 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날로 지능화되는 보험사기에 늘어나는 국민손실, 보험사기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보험사기, 반드시 적발됩니다.